

시론



김용철

이른바 '선거철'이 다가옴에 따라, 대선 이슈가 대외의 주요 메뉴로 등장할 시기이다. 신문과 방송은 대선 정국을 맞이하고 있는데, 유권자들은 조용하다. 예전 같으면, 재미삼아 필자에게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것 같냐?"고 물어 올 법도 한데, 요즘엔 그런 사람도 없다. 이런 유권자들도 선거정치를 터득한 탓일까? 아니면 아예 관심을 거둔 탓일까?

한가위, 마음껏 정치를 얘기하자

선거철이 되면 유권자들은 자신의 정책공약을 실천하고, 유권자들은 지도자가 성취한 정책 결과물들의 평가를 다음 선거에 반영한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란 인구의 고귀한 도덕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기보다는, 유권자들이 지도자를 선택하고 정부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장치로 해석되기도 한다.

렇듯, 건전한 선거정치는 "분별력 있는" 후보자와 유권자를 요구한다. 조직적 동원과 감성적 분위기가 주도하는 선거판은 이미 민주주의를 포기한 '정치 선동장'과 다를바 없다. 그곳에선 공동체의 현안과 비전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첫째, 지도자로서의 인품과 자질이 있다. 이를 위해 후보자가 걸어온 길들을 되짚어보고, 그들이 평소 어떤 사람들과 어떠한 인간관계를 맺어 왔나에 대해 얘기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둘째, 정책공약과 비전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희망을 주는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약속하는가를 따져보는 것이 핵심이다. 셋째, 정책 및 비전의 실현 능력이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과 비전일지라도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재정적 자원 및 정치적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공약(空約)에 불과하다. 이를 위해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의 분석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보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전남대 정의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정치권, 추석 바닥민심 제대로 살펴라

우리나라 최대 명절의 하나인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 올 추석 연휴는 5일이나 돼 4천600만명의 민중 대이동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모두가 귀성길에 바쁘고 가족 친지 만남 생각에 들떠 있다. 하지만, 추석을 맞는 민심은 편지가 많다. 심각한 경제난에 태풍피해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신중아씨 파문 등은 나라를 들끓게 하고 있는 각종 정치 스캔들과 민생을 내랭게치고 대선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치권의 행태도 국민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있다.

추석민심은 국민들의 생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바닥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의 지표로 삼아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대권에 만 눈이 멀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선 안된다. 이는 오히려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키게 된다. 정치의 목적이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부끄러움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면 대선후보를 비롯 정치권은 이번 추석 민심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바라는지 정확히 헤아려야 한다. 정략과 대권에만 몰두해 민초들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정치인으로서 할말이 없을 수밖에 없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3년 보완 필요하다

성매매 피해 여성 보호와 성매매 알선업자 및 구매자 처벌을 골자로 한 성매매방지법이 23일로 시행 3주년을 맞는다. 성매매가 근절되지는 못했지만 불법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피해여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 및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도 평가할 수 있다. 성매매방지법의 규정은 엄격하다. 성매매 알선과 성을 팔 사람 모집 및 소개 등의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을 팔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중형에 처하게 돼 있다. 성매매 알선자와 성을 판 사람 간의 채권계약은 무효가 된다.

성매매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매도 급증하고 있다. 해외원정 성매매도 문제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6월 한국 남성이 미성년자들과의 성매매를 위해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을 방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중국으로 수화여행을 간 고등학생들이 성매매를 했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기도 했다.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 법규를 보완하고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변종 성매매가 이뤄지는 마사지 업소나 휴게텔 등은 현행법상 신고·허가 업종이 아닌 자유업종으로 돼 있어 처벌에 한계가 있다. 인터넷 성매매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 수단도 거의 없다.



차영호



어린시절 어머니께 물어볼때 매달려 동네 영화관을 따라간 일이 있다. 영화 상영 내내 졸 곳 울었다는 것과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어른들 사이를 헤치고 보느라 애를 먹은 기억만이 이러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그 시절 그렇게 호황을 누리던 영화관들은 산업화의 거친 파고 속에서 텔레비전이라는 신문물에 속절없이 밀려났다. 우리 동네의 영화관 경영자는 영화관을 틀어 고쳐는데 많은 거금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게임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그 경영자가 당시 사회의 트렌드를 조

밀려나고 있음을 알았다 하더라도 별다른 선택이 없었을 것이다. 요즘 기초예술 즉 순수예술에 대한 절망의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온다. 연극을 만들고 관객과 만나는 것이 정상적인 메커니즘으로는 작동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원금 의존도는 커지고 '크고 화려한 공연'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면서 예술계의 장르별 다양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위기가 복합적이라는 데 있다. 단기적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

기고

윤광호



춘궁기라고도 했던 보릿고개는 목은 식량이 다 떨어지고 보리가 아직 여물지 않았던 5~6월쯤을 이르던 말이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농촌에서는 초여름 보리를 수확하기 전 1~2개월 동안 풀뿌리와 나무껍질을 벗겨 먹으며 빈곤한 생활을 했다. 오죽했으면 '보릿고개가 태산보다 높다'라고 했을까? 햇보리가 나오기 전까지의 시기는 정말 넘기 힘든 고난의 고개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쓸 한 톨, 보리 한 톨 남기

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줄일 수 있을 것인가?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가정마다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이물질과 물기를 제거하여 퇴비,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해야 한다. 또한 음식물이 유통기간이 지나도록 보관하다가 버리게 되거나 냉장고에 보관하지 못해 식품이 상해서 버리게 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식단을 계획한 후 꼭 필요한 식품만을 적정량 구입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시민의 지혜로 음식물쓰레기 줄이자

는 것도 최악이 되던 시절에는 음식물을 남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로부터 40여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최근 광주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양은 450t(1인당 0.32kg)으로 처리비용이 연간 90억원에 육박한다. 음식물쓰레기는 수거·운반 및 처리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매립할 경우에는 악취, 해충, 침출수 등으로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켜 심각한 보건 및 환경문제를 유발한다. 하지만 우리지역은 남도지방의 체면문화와 결부된 풍성한 상차리기 등 전통적인 음식문화의 영향 등으로 음식물쓰레기가 갈수록 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음식물쓰레기를 어

음식을 조리할 때 식사량을 감안하여 알맞게 장만하며, 식사 시에는 소형 찬그릇을 사용하여 조금씩 덜어먹고 남은 음식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음식을 할 때 남은 음식은 깨끗하게 포장하여 집으로 가져오는 것도 지혜다.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시민들의 협조 없이 행정기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며칠 뒤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다. 헤어져 있던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함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갖가지 지혜를 모으는 일도 이번 명절을 뜻있게 보내는 일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광주시 환경녹지국장>

교통법규 준수해서 '사고 없는 명절' 됐으면...

몸도 마음도 들뜨는 추석연휴가 시작됐다. 운행 중 가족과 친구들 생각에 한눈을 팔다간 자칫 교통사고를 당하기 쉽상이다. 또 고향에 내려가 여러 지인들에게 인사를 하다가보면 마음이 급해진다.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다 인사를 해야 할 곳은 왜 그리도 많은지 침착하게 운전한다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모두들 연휴로 인해 긴장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심야시간대 차량 통행이 한산한 관계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차량을 찾아 보기가 힘들다. 빨간불이 '빨리 가시오'라는 뜻도 아닌데 망설임 없이 통과하는 차량, 경주를 하듯 제한속도를 넘어서 질주하는 광경을 볼 때면 위험을 떠나 위협적이기까지 하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오랜만에 마주한 가족들의 행복을 산산이 깨뜨려 버릴 수 있다. 술을 먹은 사람이 쉽게 흥분하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처럼 명절 들뜬 기분은 자동차까지 날아다니게 만든다. 어디선가 그랬던가? 명절에 고향에 들고 갈 선물 중 가장 큰 선물은 건강이라고... 평소엔 인사도 제대로 못했던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선물은 고사하더라도 근심은 안겨주지 말도록 안전운전을 당부한다. 교통법규는 운전자를 모두의 약속이다. 자신과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한 소중한 약속임으로 즐겁고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가 최우선 과제임을 명심하자. ▲이재중·광주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권위

영화관의 추억과 기초예술

급만 잃을 줄 알았다면 그런 무모하고 치명적인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소위 대학에서 극장경영, 예술경영을 가르치고 있는 지금의 나라고 하더라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까를 생각하면 자신이 없다. 당시영화는 우리의 국력에 비해 한참 앞선 대중예술 산업이었고 영화관은 지역의 유일한 대형엔터테인먼트 현장이었다. 어쩌면 그 경영자는 대형 시네마스크린 화면과 생생한 음향, 가끔 들어오는 신기한 입체영화와 인기 가수들의 화려한 쇼(당시는 리사이틀)를 가지고 웬만한 어려움쯤은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지금에 와서 그 분에게 이 승부에 얼마나 자신이 있었는지 여쭙 볼 수는 없지만 막연하게 운에 기대지만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 그저 열심히만 하면 위기를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설사 시대의 흐름에

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렇다고 공공지원금을 대폭 확대 한다고 가능한 일이 아니다. (실제로 예전에 비해 지원금은 많이 늘었다)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극복하고자 역지로 그 공연의 관객을 몰아내고 예술가를 배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어쩌면 이러한 위기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 변화의 반영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도저히 산술적으로는 풀 수 없는 우리공연의 현실에서 예술가들이 찾을 것은 오히려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고자 하는 단기적 아이디어가 아니라 특색 있는 원칙일지 모른다. 그리고 그 원칙의 첫걸음은 예술가들의 결연한 의지이다. 텔레비전의 침공에 맞서 지역의 작은 영화관이 빼들었던 갈고의 교훈처럼 오늘날 기초예술의 위기는 개개 인이나 각 예술단체의 노력으로 풀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여차피 이 위기를 풀 당사자는 예술가들이기 때문이다. <연극인·2005년 1월 수상자>

은펜칼럼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자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등록금 올리기 혈안 사립대학들 반성해야

우리 대학의 등록금 인상이 지나치게 높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올리며 그 인상이 물가인상률의 3배나 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최근 수년간 공무원의 봉급인상률이 1.5~2%선임에도 대학등록금은 매년 7~9%선까지 올려 해도 너무 한다는 지적이 높다. 도대체 왜 이토록 등록금이 높고 학부모에게만 전가를 시키는가. 각국마다 인재를 키우기 위해 교육예산을 늘리고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는데 비해 우리는 갈수록 학부모의 호주머니나 끌어내고

정부나 사립재단들은 정말 최소한의 생색만 내고 있을 뿐이다. 경제가 어려울때는 대학도 고통을 분담해야 할데도 대학은 마치 남의 일인양 모른체 하고 끝까지 수익자 부담 원칙만 들먹이며 등록금 올리기에만 혈안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 우리의 경제상황과 학부모의 지나친 부담을 감안하여 최소한만 올릴수 있도록 강력히 각 대학에 시정조치 내지 권고해야 할 것이다. ▲우정렬·인터넷 독자

無等鼓

'시인을 따라라/ 밥의 끝자락까지/ 당신은 당당한 목소리로 끊임없이/ 가슴의 사막 한가운데에서/ 치유의 분수가 솟아오르게 하고/ 시대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유의 인간에게 어떻게 칭찬해야 하는지 가르쳐다네' 영국 출신의 시인 W.H.오든이 '이니 스프리의 호도(湖島)'로 유명한 윌리엄 B.에이츠의 죽음을 애도하며 쓴 추모시다. 오든이 대문호를 칭송한 이유는 눈부신 문학적 성취보다는 (시를 통해) 고통을 환희로, 사악한 세상을 선량한 눈으로 보게 하는, '칭찬의 힘'을 가르친 그의 해안 때문이었다. '칭찬의 힘'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

한 조각이 발견됐다. 신문기사에는 아브라함 링컨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격려한 정치평론가 존 브라이트의 연설내용이 들어있었다. 얼마나 자주 봤는지 너털너털했다. 링컨이 재임기간 중 수많은 비난 여론에도 대통령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이 칭찬 구절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인지 모른다. 민중대명절인 추석이 시작됐다. 추석은 흠어져 있던 가족, 친지들이 모여 혈육의 정을 나누는 기회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 오가는 이야기는 많지만, 정작 상대방을 '피워주는' 칭찬은 드물다. 가까운 사이에 '넌 간지럽다'는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올 추석에는 사람이 들뜬 감정에 휩쓸려 가족들에게 건네보지, 세과(世歌)에 짓눌려 헛헛해진 마음을 200% 충전시켜줄 것이다. 칭찬은 '점잖은' (?)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는가. /박진현 문화부장 jhpark@kwangju.co.kr

칭찬 선물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for subscription and advertising.